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교육학에서 스키마는 이미 검증된 학술적 개념이지만, 실제 독서 교육의 대상들에게는 이 단어가 오용되고 있다. ㉠우리는 흔히 글의 제재에 대한 배경 지식을 스키마로 정의하지만, 이는 논리적 오류이다. 특정 개인이 겪은 경험의 총체를 의미하는 스키마는, 글이나 담화의 내용에 관한 배경 지식에 해당하는 내용 스키마와 그것의 조직 방법에 관한 배경 지식인 형식 스키마로 나눌 수 있다.

형식 스키마에 논리학을 포섭하려는 의견이 있다. 기존 연구가 글 전체의 전개 방식에 집중했다면, 이 의견은 반대로 글 속에서 이루어지는 논증의 전개 방식에 집중한 것이다. 논증은 전제로도 불리는 근거와 그에 기반한 결론이 연결된 형태로, 설명도 이에 해당한다. 만약 특정 논증이 비논리적이거나, 근거나 결론 중 하나 이상이 거짓이거나 둘의 연결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논증과 그에 대한 반박의 구조를 미리 학습한다면, 독자가 글 속의 논증을 이해할 때 드는 인지적 부담은 줄어든다.

이때 명제를 기호로 치환하는 기호논리학 또한 인지적 부담을 줄인다. 하나의 명제는 알파벳으로, 두 명제가 결합한 새로운 명제는 두 알파벳과 특수문자로 표현한다. 'P이면 Q이다.'를  $P \rightarrow Q$ 로 압축하고, 'P가 아니다.'는  $\sim P$ 로 압축한다.  $P \rightarrow Q$ 일 때, P와 Q는 P가 Q의 부분집합인 관계를 지닌 서로 다른 두 집합이다. 즉, P와  $\sim Q$ 의 교집합이 있다면  $P \rightarrow Q$ 는 거짓이다.

논증의 방식 중 하나인 삼단논법을 통해 논리적 오류를 이해할 수 있다. 삼단논법에서 결론을 구성하는 대전제와 소전제는 다시 전제와 결론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때 대전제의 전제와 소전제의 결론은 같은 명제로서 대전제와 소전제를 하나의 결론으로 연결한다. 즉, 삼단논법에서 대전제가  $Q \rightarrow R$ 이고 결론이  $P \rightarrow R$ 이라면, 소전제는  $P \rightarrow Q$ 로서 이는 참으로 성립한다. 하지만 삼단논법이라는 전제가 없는 상황에서,  $Q \rightarrow R$ 과  $P \rightarrow R$ 의 성립만으로  $P \rightarrow Q$ 가 반드시 참이라 볼 수 없다. 단지 P와 Q의 합집합이 R의 부분집합이라는 사실을 설명할 뿐이다.

논리학을 활용해 글을 이해할 때는 일상언어의 모호성에 유의하여 오독을 피해야 한다. 가령, 문맥에 따라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는 표현은 “대다수는 행복하다.”와 동치될 수 있다. 또한, 글을 명제로 치환하는 것에 치중해 글 전체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1.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개인의 경험은 서로 다르므로 스키마 또한 다르다.
- ② 환율에 대한 배경지식은 내용 스키마에 해당한다.
- ③ 어떤 논증이 거짓이라면 그 전제와 결론 중 하나는 거짓이다.
- ④ 'P가 아니라면 Q이다.'는  $\sim P \rightarrow Q$ 로 표현할 수 있다.
- ⑤ 일상언어에서는, 문맥에 따라 '모든 P가 Q'여도 P와  $\sim Q$ 의 교집합이 존재할 수 있다.

2.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의 제재에 대한 배경 지식은 독자 개개인의 경험적 검증을 거친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 ② 글의 제재에 대한 배경 지식이라는 용어는 논리학에 대한 지식과 그렇지 않은 지식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 ③ 글의 제재에 대한 배경 지식만으로는 근거와 결론으로 구성된 논증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④ 글의 제재에 대한 배경 지식이 아니면서 스키마로 부를 수 있는 지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⑤ 글의 제재에 대한 배경 지식이면서 스키마가 아닌 배경 지식은 존재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3. <보기>는 한 학생의 독서 일지를 발췌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나는 오늘 '원숭이도 경제학과 다닐 수 있다!'라는 책을 읽었어. 가장 인상깊은 부분은 22학년도 수능에도 나왔던 개념인 기축 통화를 다루는 부분이었어. 책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기축 통화인 달러화가 많아야 이득을 봐. 그리고 미국이 경상 수지를 적자로 유지하면 우리나라가 보유한 달러가 더 많아지지.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득을 R, 달러화 획득을 Q,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를 P라고 하면,  $Q \rightarrow R$ 이고  $P \rightarrow Q$ 니까  $P \rightarrow R$ 이야. 그러면 미국의 경상 수지가 적자인 게 사실 우리나라에게는 이득이었다는 거잖아?!

그렇다면 현 대통령의 정책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성장시킨 것도 설마 대통령이 미국의 경상 수지를 적자로 만들었기 때문일까? 이를 과외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질문했는데, 한심하다는 듯 어디 가서 자기 제자라 부르지 말라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평평 울었어.

- ① 학생이 책을 읽고 '우리나라는 달러화가 많아야 이득이라'는 사실을 떠올린 것은 내용 스키마를 활용한 결과겠군.
- ② 학생이 책 속의 문장을 알파벳으로 바꾼 건 기호논리학을 형식 스키마로 활용한 결과겠군.
- ③ '우리나라는 달러화가 많아야 이득이라'는 것은 삼단논법에서 대전제에 해당하겠군.
- ④ '미국의 경상 수지가 적자여야 우리나라의 달러화가 늘어났다'는 것은 삼단논법에서 소전제에 해당하겠군.
- ⑤ 학생이 질타를 받은 이유는 삼단논법이 아닌 상황을 삼단논법으로 간주하는 논리적 오류를 저질렀기 때문이겠군.